



스페인 코르도바, 이슬람 사원이 성당으로 사용되는 곳

세속주의¹⁾

일반적으로 '세속화, 세속주의'라고 하면 종교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 체계에 무분별하게 속화^{俗化}되어 가는 일련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 이상의 의미로서 기나긴 역사적 투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세속주의 정신은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않는 동시에 국가도 종교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신념과 양심의 문제들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즉 국가에 의해 종교적 강요를 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특정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지 않도록 합니다.



✎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I. 용어의 의미 및 유래

일반적으로 ‘세속화, 세속주의’라고 하면 종교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 체계에 무분별하게 속화(俗化)되어 가는 일련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 이상의 의미로서 기나긴 역사적 투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주의는 유럽사 안에서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의 유구한 긴장과 갈등관계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세속주의 정신은 서양 법제사 안에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살펴봐야 할 주요개념입니다.

기원 면에서 세속주의는 국교주의, 성직주의, 근본주의 개념과 더불어 그리스에서 유래한 유럽의 비판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속주의 개념에서 이성주의, 반독단주의, 관용과 대화 등의 용어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²⁾ 세속주의를 의미하는 단어는 영어로 ‘secularism’, 이탈리아어로 ‘세콜라리짜지오네(secolarizzazione)’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같은 현상을 프랑스어 ‘라이시테(laicité)’, 이탈리아어 ‘라이치타(laicità)’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세속주의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다른 용어로 부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속권에 넘어가는 현상으로 이해하여 ‘세속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는 원래 민중에게 속한 것을 다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여 ‘라이치스모(laicismo)’, 즉 ‘평민주의, 인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어 ‘laicità’라는 단어는 ‘평민에 속한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라이코스(λαϊκός)에서 유래합니다. 이를 라틴어가 그대로 차용하여 형용사 라이쿠스(laicus)로 옮겼으며,³⁾ 후에 라틴어 형용사 laicus가 명사화되어 오늘날 라틴계 유럽어에서 ‘laicité(프랑스어)’, ‘laicità(이탈리아어)’라는 명사가 파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laicità’라는 용어에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라이치스모(laicismo)’에서 파생하게 됩니다. 즉 세속주의 사상은 시민생활, 사회생활 및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인 이상과 윤리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교분리’라는



이태리 로마, 판테온(만신전, 모든 신을 위한 신전)

Marcus Agrippa, Lucii filius, consul tertium fecit. 루치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세 번째 집정관 때 만들었다. 정면에 새겨진 글씨의 의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구체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일반으로 확대됩니다. 세속주의는 역사적으로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관장했던 교육 및 빈민구제 등과 같은 방대한 사회정책을 포함하여 교회의 정치개입을 배제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⁴⁾

그렇다면 ‘평민성’ 내지 ‘평민주의’를 의미하는 ‘라이치스모(laicismo)’라는 말은 어디에서 처음 언급되었을까요? ‘laicismo’라는 말은 예로니모(Girolamo, 347~420)가 처음 언급했고, 후에 최초의 교회법전을 집대성한 「그라시아노 법

- 1) 본 원고는 2018년 글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법으로 읽는 유럽사」 51-60쪽을 한국법제연구원 「법연」의 동의를 받아 발췌하여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 2) E. Severino, Lo spirito critico che viene dalla Grecia, in Corriere della sera, 20 giugno 2004, p. 1.
- 3) Webster's Revised Unabridged Dictionary, Retrieved September 30, 2008, from Dictionary.com website: laic.
- 4) Cf. E. Tortarolo, Laicismo, in Enc. scienze sociali, Roma,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V. pp. 156~162, spec. p. 156. 한동일,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서양 법제사의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 자유라는 관점에서”, 「국정관리연구」 제6권 제1호(2011, 6), 116쪽 재인용.



하agia 소피아,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동방 정교회 대성당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537년에 1453년까지는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의 총본산이었다. 다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라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1204년부터 1261년까지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당으로 개조되었다가 이후 다시 정교회 성당으로 복귀하였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한 1453년 5월 29일부터 1931년까지는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1935년에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했다.

령집(Decretum Gratiani, 1140)에 “두오 순트 제레라 크리스티아 노룸(Duo sunt genera christianorum)”이라는 문장에서 재인용되고 있습니다.⁵⁾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두 가지이다”라는 뜻으로 교회의 구성원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laicismo’라는 말은 교회 구성원의 신분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다는 위계적인 성직우월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용어로서 서유럽의 정치사적 맥락에서 태동한 용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laicismo’, 즉 ‘평민주의’란 교회가 지배하던 모든 가치 체계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반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기존에 유지하던 기득권의 상실을 ‘세속화’ 내지 ‘세속주의’ 만연으로 이해하여 ‘secularism’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세의 종교적 휴머니즘을 살펴봐야 한다. 중세의 종교적 휴머니즘이란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로마의 후마니타스(Humanitas)와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을 토대로 형성된 그리스도교적 박애주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

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 학교, 탁아시설과 고아원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휴머니즘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래 그리스도교를 위한 인문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사조에 따라 그리스나 라틴 고전문학도 그리스도교 교의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⁶⁾ 이러한 교회의 관권신학과 신학 중심의 학문풍토에서 벗어나고자,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라틴어를 거부하고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기원전 43),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등의 고전어를 복원하는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조는 고대 로마법과 인간의 이성 존중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⁷⁾ 페트라르카, 단테, 보카치오 등과 같은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수사학, 웅변술, 철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세를 지나면서 상실했던 자유정신을 ‘다시 살리는 것(Renaissance(이. renascimento, 재생))’을 목표로 삼았지요. 그러한 르

5) Dalla Torre, *La città sul monte*, Editrice a.v.e, Roma, 1996, p. 148.

6) 조의실, “휴머니즘”, 『세계사대사전』, 민중서림, 1996, 1411쪽 참조.

7) 성염, 『고전라틴어』, 바오로딸, 2003, 3쪽 참조.



이태리 수비아코, 성녀 스콜라스티카 수녀원
이태리 수비아코, 성 베네딕도 수도원, 유럽의 정신이라고도 함

네상스계생 정신은 인간이 합리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연과 역사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들을 인간의 영역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큰 자율과 책임이 부여된 개인에 대한 개혁의 강조는 개인주의 경향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더 급진적으로 신과의 예속된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조가 예술, 철학, 과학, 문학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정신은 지상 정치의 개혁에 있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⁸⁾

8) M. Flores, *Storia dei diritti umani*, Bologna, 2008, p. 30.

9) 한동일,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서양 법제사의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 자유라는 관점에서”, 117쪽 재인용.

10) 살바도르, 데 파울리스, 길란다 외 지음, 한동일 옮김, 『교회법을 용어사전』, 가톨릭출판사 2017, 848쪽 참조.

II. 세속주의가 헌법에 끼친 영향

자유정신의 재생, 즉 인문주의 사조는 여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법학은 특히 ‘세속주의(secolarizzazione)’ 개념의 출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문주의 시대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입장에서 기존의 신학 중심의 학문적 풍토와 교회 권력이 일반 시민사회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현상,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세속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라는 용어를 순수 인문과학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탈그리스도교화’를 의미하는 ‘평민주의(laicismo)’를 뜻하기도 합니다. 탈그리스도교화는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시작된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시작된 여러 빈민구제 사업과 학교, 병원 등의 공공사업이 교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사회, 즉 국가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개념도 이때 유럽 사회에 등장합니다. 아울러 헌법에도 커다란 영향을 남겨 정교(政教)가 분리되는 헌법이 출현하는 토대가 되었지요. 이는 오늘날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커다란 역사적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조문 또한 ‘laicismo’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헌법도 세속주의 헌법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⁹⁾ 이처럼 오늘날 대다수 헌법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는 세계 인권 선언에 선포된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955년 유럽에서의 종파 간 형평 원칙이나 1789년 북미 지역의 여러 종파의 공존 원칙이건 간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인정된 권리는 바로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였습니다.¹⁰⁾ 즉 종교 자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종교 자유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양심에 관한 문제임을 자각하게 된 거지요.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 자유는



스페인 톨레도 대성당 안

양심의 자유로 확대되고, 이옥고 출판 및 표현에 대한 자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자유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날 기본권이라고 향유하는 권리는 그 출발이 종교 자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교라는 문화적·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타문화의 종교적 상황과 결부하여 고려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론적으로 이슬람 국가 가운데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헌법을 표방하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가령 세속주의를 표방한 터키의 경우 헌법상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스정교회와 소수종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많은 종교상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터키 헌법재판소는 1998년 1월 16일 터키 헌법 제68조와 제69조, 법령 제2820조, 제103조 규정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principio di laicità’에 반대되는 활동을 배제한다고 공표했습니다.¹¹⁾ 바로 여기에 언급된 탈종교화의 원칙이 그리스도교라는 맥락을 벗어나 다른 종교와 문화적 환경에서 고려될 때, 세속주의라는 용어는 정치에서 종교가 분리된 ‘정교분리’를 의미하게 됩니다.¹²⁾

III. 나오면서

지난 호에 이어 서양 법제사 안에서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의 긴장관계 속에서 법과 종교가 어떻게 분리되어왔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종교의 분리는 ‘로마법’과 로마법 이후 로마법의 계승자로 자처한 ‘교회법’, 교회법과 일반 시민법의 공통분모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법체계인 ‘보통법*ius commune*’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문주의 사조로 촉발된 르네상스의 정신은 세속주의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법과 종교가 분리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 정신은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않는 동시에 국가도 종교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신념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즉 국가에 의해 종교적 강요를 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특정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통상 종교 지도자들 위주로 구성된 세속주의 반대 세력은 세속주의가 반성직주의, 요셉주의*Josephinism*,¹³⁾ 갈리아주의*Gallicanism*¹⁴⁾를 은폐한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본주의 이슬람 지도자들과 교황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오늘날의 정신세계를 점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1) M. Introvigne, *La Turchia e L'Europa. Religione e politica nell'Islam turco*, Milano, 2006, p. 123.
 12) 한동일,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서양 법제사의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 자유라는 관점에서”, 117~118쪽 재인용.
 13) ‘요셉주의’는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 황제(1741~1790년 재위)의 종교 정책으로, 국가는 교회에 대한 간섭권, 우위권을 갖는다. 황제는 교회의 재산 대부분을 몰수하고, 교회에 바쳐지는 모든 기금을 종교 기금에 통합시켜 공공의 종교 활동비에 충당하려 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황제는 모든 수도원을 해산시켰고 이를 세속용으로 불하했다. 요셉 2세 황제는 양초에 관한 규칙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간섭했기 때문에 ‘제의실의 황제’라고도 불렸다.
 14) ‘갈리아주의’는 프랑스 역사상 이론과 실천면에서 교황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운동으로, 19세기 역사가들은 이 운동을 가리켜 갈리아주의라고 불렀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에는 전제 군주국가 체제가 확립되고 지방 교회가 정돈되면서 정치적으로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국수주의國粹主義가 발생하고, 지방 교회의 일은 지방주교와 지방 교회에 맡기라는 주장이 대두했다. 1682년 프랑스 성직자들은 보쉬에Bossuet(1627~1704)를 필두로 하여 4개조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교권에 대한 정권의 독립, 콘스탄츠공의회 결의에 준한 교황의 수위권 해석, 교황권은 프랑스교회의 회의와 관습에 맞게 행사될 것, 신앙문제에 대한 교황의 결정은 전체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상 4개조에 잘 요약되어 있는 갈리아주의는 알렉산데르 8세 교황에 의하여 배격되었으며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되었다. 갈리아주의는 나폴레옹의 지지를 받았으며 프랑스와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가르쳤다.



아시시 대성당

물론 세속주의가 때론 종교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세속주의가 오히려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자정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세속주의를 통하여 더 철저하게 종교의 ‘거룩함’을 부각시키는 데 세속주의의 참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황청 주재 대사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로 “교회가 세속적인 권위와 힘을 완전히 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신神의 것은 신께 돌려드려라”라고 하지 않았던가(마태 22, 21. 15) 따라서 종교의

참 힘은 세속의 권위와 힘에 의존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의 힘과 권위를 버릴 때 민중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도덕적 권위와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향유했던 세속의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 종교인의 유혹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겠지요.

15) “Reddite ergo, quae sunt Caesaris, Caesari et, quae sunt Dei, Deo”(Mt 22, 21).